



2026. 8. 21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 News

## 연초엔 풀고 하반기 잠그고...은행 대출기준 올해만 73번 손질

서울경제 <https://zrr.kr/XGT9JO>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올해 들어 대출 취급 조건을 70차례 넘게 손질  
연간 증가 목표에 근접하면 상품 접수를 줄이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문을 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주택 매매처럼 장기간 자금 계획이 필요한 차주들의 혼란이 확대

## 정규직 줄고 계약직 늘고... 은행권 '디지털 전환' 명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clxGup>

은행권의 디지털전환(DX)으로 점포 폐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전체 직원 수가 추세적으로 증가  
오프라인 지점 중심 전통 인력은 줄고 있지만 디지털금융·데이터 인프라 등 DX 중심 신사업 관련 조직 신설과 퇴직자 재채용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

## 중·저신용자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30%보다 더 준다

서울신문 <https://zrr.kr/pc6Vzy>

시중은행이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할 경우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빼주는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  
서민·취약계층 대출이 은행의 대출 한도를 깎아먹는 부담을 줄여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

## 6월말 은행 연체율 0.56%...전년 대비 0.04%p 높아

머니투데이 <https://zrr.kr/wB9u9j>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0.67%)보다 0.11%p 하락, 지난해 같은 달(0.52%)과 비교하면 0.04%p 높은 수준  
통상 분기 말 은행들이 연체채권 상·매각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커 금융당국은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경계

## "이때다, 뒤도 안돌아본다"...삼성넥스 레버리지 거래대금 이틀만에 1조 넘어

매일경제 <https://zrr.kr/loDKop>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 마감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인버스 2종 포함)의 거래대금이 이틀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35.2% 증가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대량 매도, 외국인인 KODEX와 TIGER의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유 주식 매도에 차익 실현

## "주가 누르기 차단"...합병가액, 시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산정

데일리안 <https://zrr.kr/EyK8la>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은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 산정방법 역시 공정가액 도입 취지를 반영해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주주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

##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진입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일리안 <https://zrr.kr/2NgXQE>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에 있는 사람의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강화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설계사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제재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

## 삼성화재·DB손보 이어 KB손보도 해외로...손보업계 글로벌 확장 속도

머니투데이 <https://zrr.kr/KgKN3J>

KB손보 대표가 다음달 영국 로이즈를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 지난 3월 진출 계획안이 이사회 승인을 마친 이후 구체적인 방안과 현지 사업 기회를 살펴보기 위한 행보  
국내 보험사의 로이즈 진출은 단순히 영국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특수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심사)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의미

## 비트코, 인수 대신 VASP 직접 취득...글로벌 기업 첫 사례

뉴스1 <https://zrr.kr/e1hl4f>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코의 한국 법인 비트코코리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접 신고 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 코인채 담기만 하던 운용사들, 디지털자산 시장 직접 뛰어들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gfhUw>

국내 운용사들이 과거 블록체인 관련주를 담은 펀드나 ETF를 만드는 데서 최근에는 전문인력 영입,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협업 등 직접 디지털자산 생태계로 진입  
신한이 인력과 금융 블록체인 인프라, 미래에셋이 ETF 토론회, 한화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삼성이 지분투자, KB가 상품 선점에 각각 무게를 두는 모습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